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거를 공의 소용돌이 속에 팽개칠 수 있는 대장부라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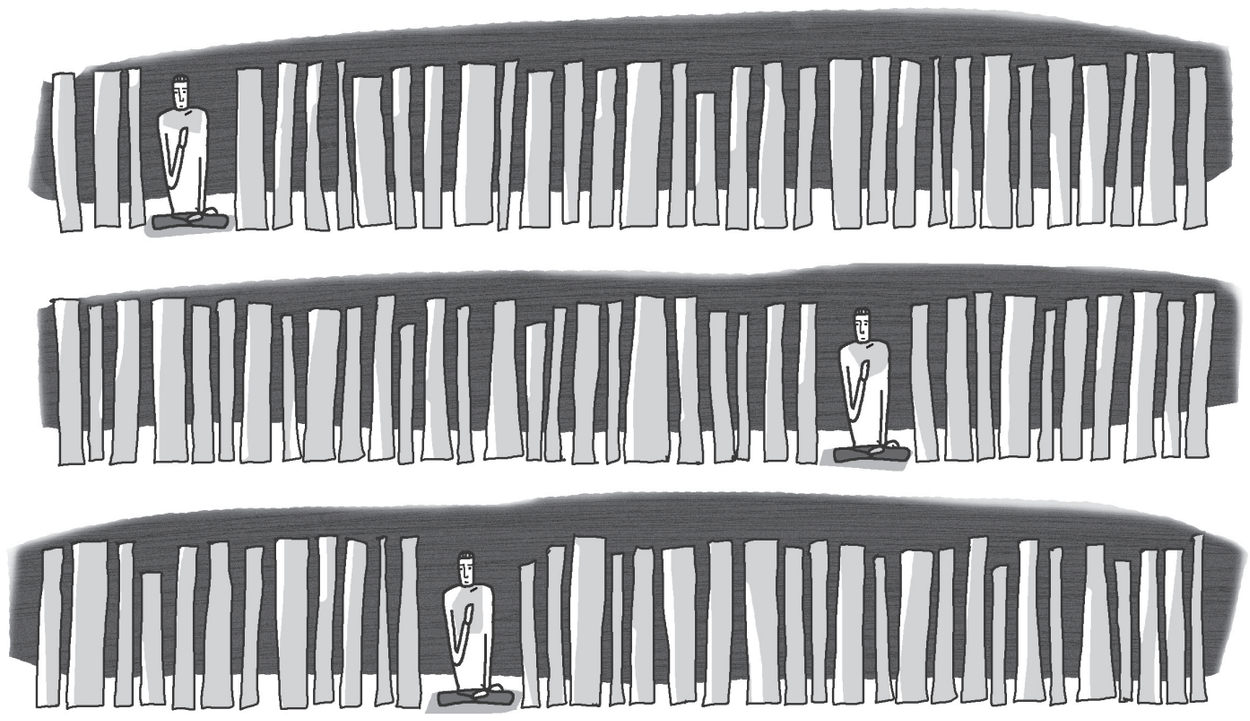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오늘 첫째 일요일 날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빡빡,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 내고 몸이 움죽거리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따지고 보면,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 동산에 한 물건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배를 하든지 천배를 하든지 삼천배를 하든지 또 일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니 업보가 많느니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느니 운명이 이렇느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씌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씌워 주기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면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씌워졌다면 여러분도 씌워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촉촉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새달에, 훗달에 어떠니저떠니,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여(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바로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끝 간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끄달려서 속고 삽니다. 속아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 간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잘 들으세요. 팔만대장경이 글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빛, 햇빛! 묵은 빚을 갚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모두들 조상 따로 두고 부처님 따로 두고 그러는데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개구리 어머니가 새끼 개구리 둘을 업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져서 뒤집혔는데 엄마를 따라가려고 바둥바둥하더라고요. 어미 개구리는 거기 멈춰 서서 사람의 어머니처럼 "빨리빨리, 얼른 오너라." 하고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자식이 어머니를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부처란 얘기예요. 마음! 마음이 있다면 행이 나오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유생 무생이 다 그렇단 얘기죠. 사생이 다 그렇다 이 소립니다. 태로 나는 거라든가 알로 나는 거라든가, 화해서 나는 거라든가 질척질척한 데서 나는 거라든가, 사생이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해골 무더기에다 절을 했다는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사생자부이신데 어찌 해골 더미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흙과 물은 어머니로 비유하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로 비유했어요. 흙이라는 데서, 물이라는 데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인간까지, 100%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는 거냐. 말로 이론으로는 전부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우주 근본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는 뜻은…, 보세요. 잘 펼쳐 놓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일에 지쳐 쓰러져서 죽어 가면서 그 자식을 다 기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어미 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어머니만, 소의 어미만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 어미도 그렇고 코끼리 자식도 어미를 찾는 그 가긍한 마음이 있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럴지언댄 어찌 그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소극적으로 요 개별적인 나, 요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이 아닌 뜻을 아신다면 너 나가 없이 찰나찰나 나투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마따나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벌을 봐도 그렇고 개미를 봐도 그렇고요. 개미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생기면 어딘가 말없이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 없이 말을 전달해 가지고 우우 모이게끔 해 놓거든요. 인간도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내 식구를 전부 몰고 가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에 가득 싣고 왔으면 식구들이 몽땅 가서 모두 들고 들어오듯이, 개미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믿는다고 해서 밥이나 떡이나 해 놓고 빌고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지장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